‘철인’ 이도연, 장애인AG 사이클 3연패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女 핸드사이클 도로독주
13.5km 23분35초80 주파
2014년 인천 대회부터
정상에 우뚝… 대업 완성

이도연은 26일 중국 항저우 춘안 제서우 스포츠센터 사이클 도로 코스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여자 핸드사이클(H1~5) 도로독주 경기에서 13.5㎞를 23분35초80에 주파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장애인사이클계의 ‘철인’ 이도연(스포츠등급 WH4·전북장애인사이클연맹)이 장애인아시안게임 3연패를 일궜다.

이도연은 26일 중국 항저우 춘안 제서우 스포츠센터 사이클 도로 코스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여자 핸드사이클(H1~5) 도로독주 경기에서 13.5㎞를 23분35초80에 주파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애인사이클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른 자전거를 타는데, 하지 장애가 있는 이도연의 종목은 뒤로 누운 채 팔로 페달을 굴리는 핸드사이클이다. 도로독주에서는 출전 선수가 1분 간격으로 출발해 각자의 개인 기록을 겨룬다.

이도연은 이날 첫번째 구간까지 10분21초91을 기록하며 중국의 쑨벤벤(10분17초80)에 4초11 뒤졌으나, 후반부 속력을 높이며 역전했다. 이도연은 쑨벤벤을 15초65 차로 따돌렸다.

경기 뒤 이도연은 믹스트존에서 기록을 전해 듣고 1위 사실을 확인한 뒤 환호성을 질렀다.

이어 가쁜 숨을 고르며 “제가 여기 선수 중 제일 연장자다. 젊은 친구들한테 겁도 먹고 있었는데, 국가대표로 왔기 때문에 나이는 핑계고, 죽기 살기로 달렸다”고 말했다.

이도연의 행적은 경이롭다.

19살에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그는 34살이 되어서야 탁구 라켓을 잡으며 처음 운동을 시작했다. 40살에 육상을 시작해 2012년 장애인 전국체전 3관왕에 올랐고, 2013년 다시 핸드사이클로 종목을 바꿨다.

전향 이듬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장애인사이클 국제 대회(2014 이탈리아 장애인사이클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42살 신성’의 출현을 전세계에 알렸다.

이도연은 2014년 인천 대회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연달아 2관왕을 달성했고, 이날 다시 정상에 서며 종목 3연패 대업을 완성했다.

2018년에는 스키를 배운지 1년여 만에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장애인 노르딕스키(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태극마크를 달기도 했으니 타고난 운동 천재다.

이도연은 “조상님한테 감사드린다. 어렸을 때부터 체격이 남달랐다. 장애를 얻고 재활하면서 지쳐 있었는데 타고난 몸 덕에 매번 잘했던 것 같다”며 웃었다.

또 “(사이클 도로독주는) 타인과 대결이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한다. 제 자신을 이겼다는 마음이 뿌듯하다”며 “달리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힘이 부칠 때는)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내 몸과 자전거를 향해 ‘너희 둘이 하나가 돼서 잘 달려줘’ 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이도연은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7일에는 핸드사이클 41.4㎞ 개인도로 경기를 치른다. 이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할 경우 그는 장애인아시안게임 3개 대회 연속 2관왕에 오르게 된다.

앞서 치러진 남자 핸드사이클 13.7㎞ 도로독주에 출전한 윤여근(스포츠등급 MH4·충청남도)은 21분52초01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으나 이번에는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윤여근 27일 핸드사이클 55.2㎞ 개인도로에서 다시 달린다. /뉴시스

정재홍·김승희·황동기, 장애인AG 론볼 金… 하루에만 메달 5개

정재홍은 정상철과 결승서 집안싸움 끝에 금·은
김승희, 티틴 꺾고 1위… 앞서 황동기 우승 차지

한국 론볼 대표팀이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하루에만 금메달 3개를 포함해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정재홍(스포츠등급 B8·광주장애인론볼연맹)은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원후이 스쿨 론볼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론볼 남자 단식 결승에서 집안싸움 끝에 정상철(스포츠등급 B8·전남장애인론볼연맹)을 18-12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상철은 은메달을 차지했다.

정재홍은 이날 초반부터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가며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고, 13엔드에서 9점 차까지 앞서며 사실상 승기를 굳혔다.

정상철이 마지막까지 추격전을 펼쳤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2019년 론볼을 시작해 올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정재홍은 코로나19로 대회가 1년 연기된 덕에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었고, 내친김에 금메달까지 차지했다.

정재홍은 “경험 삼아 대회에 참가한다는 생각으로, 메달 하나만 따자는 마음으로 항저우에 왔다”며 “금메달을 따 정말 기쁘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정재홍과 정상철은 서로의 실력을 치켜세우며 자신을 낮추기도 했다.

“원래 정상철이 더 잘하는데, 오늘은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정재홍이 겸손하게 말하자 정상철은 “정재홍이 잘한다. 최근에 감도 좋아 보였다”고 손사레를 쳤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혼합 복식에서 은메달을 땄던 정상철은 이날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김승희(B8·전북장애인론볼연맹)와 짝을 이룬 혼합 복식에서 자신의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노린다.

정재홍-정상철의 경기와 같은 시간에 열린 여자 단식에서 김승희는 인도네시아의 티틴을 16-1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승희는 “금메달을 꼭 따야겠다는 목표로 왔다”며 “평소대로 했을 뿐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앞선 경기에서는 황동기(스포츠등급 B6·전남장애인론볼연맹)와 임천규(스포츠등급 B6·부산장애인론볼연맹)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뉴시스

육상 전민재 눈물의 편지

“파리에서 작별할께요”

항저우 장애인AG서 200m 이어 100m서도 은메달

전민재가 26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T36 100m 결선에서 15초26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믹스트존으로 나온 전민재(46·스포츠등급 T36)의 눈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취재진 앞에 주저앉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준비한 편지를 음성 변환해 취재진에 건넸다. 편지의 음성이 모두 끝나자 전민재는 다시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전민재는 26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T36 100m 결선에서 15초26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중국의 쉬이팅(26)보다 0.7초 늦은 2위로 들어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레이스를 마치고 힘든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의 별명은 ‘스마일 레이서’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미소 대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2014년 인천 대회에서 발로 쓴 편지로 감동을 안겼던 그는 이번엔 스마트폰에 힘겹게 담은 편지를 준비했다.

다섯 살 때 원인 모를 뇌염으로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전민재는 손도 심하게 뒤틀려 글자를 쓰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글자 한 글자 스마트폰 액정을 꾹꾹 눌러가며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편지에서 ‘안녕하세요, 육상 선수 전민재입니다’ 라고 운을 뗀 그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체격도 월등히 떨어지고, 꾸준히 나이 어린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는 반면 기록은 제자리걸음에 계속 순위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에서 좌절도 하고 실망도 했다’ 라며 지난날을 돌아봤다.

하지만 이내 ‘나름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숨가쁘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연습에 매진했다. 그 결과 이렇게 메달을 목에 걸게 돼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 라고 전했다.

전민재는 2020년부터 어머니 한재영 씨가 생활과 훈련 보조를 전담하고 있다.

‘엄마도 연세가 있으셔서 힘드실텐데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 항상 감사하고 죄송하다. 언제나 제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엄마께 이 메달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 ‘라고 했다. 이어 아빠와 언니, 조카에 이어 감독과 코치, 교회 사람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46세의 적지 않은 나이, 전민재는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다. 지난 23일 200m 결선 후 “100m 경기를 보고 파리 패럴림픽 출전 여부를 정하겠다”라고 한 그는 사흘 뒤 이 편지를 통해 마음을 굳혔다.

전민재는 ‘올해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은퇴를 고심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권유하고 설득해 주셔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내서 파리 패럴림픽까지 달려보려고 한다’ 라고 결심했다.

‘말도 할 수 없고 손도 불편한 제가 힘들고 외롭고 답답할 때 육상이 꿈과 희망을 심어 줬다. 유일한 탈출구이자 친구였던 육상과 파리 패럴림픽을 마지막으로 아쉬운 작별을 할까 한다. 다시 한 번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린다’ 라며 눈물의 편지를 마쳤다.

어렸을 적 심한 사춘기로 “스무 살까지만 살겠다”던 전민재는 육상으로 희망을 얻어 이젠 장애인 육상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됐다. 그런 그가 2024년 파리 패럴림픽까지 바라보게 됐다.

전민재의 육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뉴시스